

名前: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신문이나 잡  
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  
하면 인터넷,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  
계 때문이다.  
그럼 하나로써 ON-LINE 세상에서는  
독자가 읽기 어려운 곳이 상당수 존재  
한다. 또는 가독성이다. 비교적으로 간단  
한 정보는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을지  
도 모르겠지만, 그 중의 지식은 지라도  
바쁘게 프린트 아웃해서 읽는 것이 일반  
적으로 생각되어지고 있다.  
다른 한 곳으로는 정보의 보안성이  
어디까지 지켜지는 것인가에 문제이다.  
분명히 인터넷은 새로운 정보를 빠르  
게 확산시키는 것에는 유리하지만, 그  
때문에 아직 보안성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바라볼수록 알수록, 엄청난 정보 양에  
의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있다. 즉, 양이  
너무 많아져서 선택이 점점 어려워지고는

것이다. 가능한한 간단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인터넷이 오히려 독  
자를 혼란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단순한 길을 가고 싶다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프, 컴보이, 팟식적 수단을  
한다. 그래서 자신이 추구하는 정보만  
취하고 자신에게 필요없는 정보는 버리  
는 선택이 보다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  
모름을 참은 이들이 나라이 문제나 정리  
화제에 대해서는 허탈로 맞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그 중 하나이다.  
단과과를 너무 많이 먹어서 한바탕  
여미각이 느껴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여상의 이치를 좀 향하면 인터넷은 반  
응이 보물상자가 아닌 다른 매체와 상  
생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